

#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24년도 4분기 말 기준 수익률 등 현황 공시 -

'24년도 4분기 말 사전지정운용제도(이하, '디폴트옵션') 공시 결과, 디폴트옵션 적립금은 40조 원, 지정가입자 수 6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적립금 219%, 지정가입자 수 32% 늘어난 것으로 지난 1년간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적립금】 ('23. 4분기) 12조 5,520억 원 → ('24. 4분기) 40조 670억 원 (전년 동기대비 219% 증)

\*【지정가입자 수】 ('23. 4분기) 479만 명 → ('24. 4분기) 631만 명 (전년 동기대비 32% 증)

디폴트옵션은 현재 41개 금융기관의 315개 상품이 정부 승인을 받았으며, 지난해 불안정한 금융시장 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이면서 퇴직연금 시장에서의 상품 경쟁력을 입증했다. 특히, 중위험 또는 고위험 등급의 68개 상품은 1년 수익률이 15%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수익률】 초저위험상품 3.3% < 저위험상품 7.2% < 중위험상품 11.8% < 고위험상품 16.8%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 취지가 수익률 제고에 있는 만큼, 정부는 원리금 보장상품에 편중된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초저위험상품 적립금 / 전체 적립금】 35조 3,386억 원 / 40조 670억 원 ≙ 88%

먼저, 금년 공시부터는 개별 금융기관의 위험등급별 적립금(판매) 비중을 추가적으로 공개한다.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원리금보장상품의 편중 정도를 알림으로써, 가입자에게는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금융기관에는 가입자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년 4월부터는 모든 디폴트옵션의 상품 명칭도 변경한다. 현행 디폴트옵션 상품 명칭은 ‘위험’을 강조하고 있어 합리적 투자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었으나, ‘투자’ 중심으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가입자 성향에 적합한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①초저위험 → 안정형, ②저위험 → 안정투자형, ③중위험 → 중립투자형, ④고위험 → 적극투자형

【예시】 00증권 디폴트옵션 고위험 TDF → 00증권 디폴트옵션 적극투자형 TDF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분기마다 디폴트옵션 상품의 주요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시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공시자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www.moel.go.kr](http://www.moel.go.kr)(정책자료실) / 【금융감독원】 [www.fss.or.kr](http://www.fss.or.kr)(통합연금포털)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	책임자	과 장	김부경 (044-202-7554)
		담당자	사무관	신창모 (044-202-7557)
담당 부서 (금융감독원)	연금감독실 연금감독팀	책임자	실 장	이동규 (02-3145-5180)
		담당자	팀 장	김윤조 (02-3145-5190)



**1. 공시대상 : 315개 승인 상품**

**2. 적립금액 : 약 40조 670억 원**

- ▶ (제도별) DC제도 27조 7,677억 원 / IRP제도 12조 2,993억 원
- ▶ (위험등급별) 초저위험 35조 3,386억 원 / 저위험 2조 4,511억 원 / 중위험 1조 5,936억 원 / 고위험 6,837억 원

**【 적립금 규모 상위 10개 기관 】**

사업자명	DC	IRP	합계
KB국민은행	4조 2,295억 원	3조 5,035억 원	7조 7,330억 원
신한은행	4조 3,240억 원	2조 7,917억 원	7조 1,157억 원
IBK기업은행	5조 450억 원	6,180억 원	5조 6,630억 원
하나은행	2조 7,757억 원	1조 5,605억 원	4조 3,362억 원
농협은행	2조 7,531억 원	1조 1,264억 원	3조 8,795억 원
우리은행	1조 9,148억 원	1조 3,842억 원	3조 2,990억 원
근로복지공단	2조 5,816억 원	7억 원	2조 5,823억 원
광주은행	4,148억 원	1,062억 원	5,210억 원
미래에셋증권	3,033억 원	1,922억 원	4,955억 원
부산은행	3,601억 원	1,252억 원	4,853억 원

**3. 지정가입자 수 : 약 631만 명** (디폴트옵션을 지정한 가입자 수)

- ▶ (제도별) DC제도 334만 명 / IRP제도 297만 명
- ▶ (위험등급별) 초저위험 533만 명 / 저위험 42만 명 / 중위험 33만 명 / 고위험 23만 명

**4. 운용가입자 수 : 약 300만 명** (지정한 디폴트옵션이 작동 중인 가입자 수)

- ▶ (제도별) DC제도 184만 명 / IRP제도 115만 명
- ▶ (위험등급별) 초저위험 256만 명 / 저위험 20만 명 / 중위험 15만 명 / 고위험 9만 명

**5. 수익률**

**운용 기간별 상품 수익률(%)**

구분		3개월	6개월	1년
위험등급별	초저위험	0.68	1.52	3.32
	저위험	1.23	2.29	7.20
	중위험	2.51	3.62	11.77
	고위험	4.16	5.18	16.83

□ <6개월 수익률> 위험등급별 상위 5개 상품(%)

초저위험 상품명	수익률	저위험 상품명	수익률
미래에셋생명 디폴트옵션 초저위험 이율보증형보험	1.97	삼성증권 디폴트옵션 저위험 포트폴리오2	6.41
IBK연금보험 디폴트옵션 초저위험 이율보증형	1.90	하나은행 디폴트옵션 저위험 포트폴리오2	5.71
DB생명 디폴트옵션 초저위험 이율보증형	1.81	한국투자증권 디폴트옵션 저위험 포트폴리오2	5.35
현대해상 디폴트옵션 초저위험 이율보증형	1.80	동양생명 디폴트옵션 저위험 포트폴리오2	5.30
교보생명 디폴트옵션 초저위험	1.79	IBK연금보험 디폴트옵션 저위험 BF2	4.72

중위험 상품명	수익률	고위험 상품명	수익률
한국투자증권 디폴트옵션 중위험 포트폴리오2	9.07	한국투자증권 디폴트옵션 고위험 BF1	13.65
동양생명 디폴트옵션 중위험 포트폴리오2	7.94	하나은행 디폴트옵션 고위험 BF3	10.67
하나은행 디폴트옵션 중위험 포트폴리오3	7.59	동양생명 디폴트옵션 고위험 BF2	10.59
NH투자증권 디폴트옵션 중위험 포트폴리오2	7.19	하나은행 디폴트옵션 고위험 포트폴리오2	10.19
삼성생명 디폴트옵션 중위험 BF2	7.14	삼성생명 디폴트옵션 고위험 TDF1	10.01

□ <1년 수익률> 위험등급별 상위 5개 상품(%)

초저위험 상품명	수익률	저위험 상품명	수익률
미래에셋생명보험 디폴트옵션 초저위험 이율보증형보험	4.01	삼성증권 디폴트옵션 저위험 포트폴리오2	15.83
근로복지공단 디폴트옵션 초저위험 이율보증보험	4.01	NH투자증권 디폴트옵션 저위험 포트폴리오2	13.04
삼성화재 디폴트옵션 초저위험 이율보증형보험	4.01	동양생명 디폴트옵션 저위험 포트폴리오2	12.68
IBK연금보험 디폴트옵션 초저위험 이율보증형	3.85	NH투자증권 디폴트옵션 저위험 포트폴리오1	12.47
DB생명 디폴트옵션 초저위험 이율보증형	3.81	신한투자증권 디폴트옵션 저위험 포트폴리오3	12.34

중위험 상품명	수익률	고위험 상품명	수익률
한국투자증권 디폴트옵션 중위험 포트폴리오2	20.89	한국투자증권 디폴트옵션 고위험 BF1	35.88
삼성생명 디폴트옵션 중위험 BF2	20.08	동양생명 디폴트옵션 고위험 BF2	26.12
한화생명 디폴트옵션 중위험 BF1	20.08	삼성생명 디폴트옵션 고위험 TDF1	25.73
NH투자증권 디폴트옵션 중위험 포트폴리오2	19.58	우리투자증권 디폴트옵션 고위험 TDF2	25.73
동양생명 디폴트옵션 중위험 포트폴리오2	19.40	동양생명 디폴트옵션 고위험 BF1	25.55

## 6. 위험등급별 적립금 비중(신설)

(단위: %)

수익률(1년)		3.32	7.20	11.77	16.83
연번	퇴직연금사업자	초저위험 상품	저위험 상품	중위험 상품	고위험 상품
1	DB생명보험	81.27	14.48	2.80	1.45
2	DB손해보험	89.23	0.00	9.67	1.10
3	IBK기업은행	89.65	4.14	4.81	1.40
4	IBK연금보험	91.63	5.28	0.00	3.09
5	iM증권	87.40	3.60	2.04	6.96
6	KB국민은행	83.50	11.54	3.58	1.38
7	KB손해보험	86.54	8.73	4.02	0.71
8	KB증권	49.99	21.18	16.53	12.30
9	NH투자증권	50.15	17.57	21.52	10.77
10	경남은행	93.11	2.92	3.24	0.72
11	광주은행	97.43	0.93	1.04	0.61
12	교보생명보험	75.82	14.77	6.75	2.66
13	근로복지공단	99.59	0.28	0.08	0.06
14	농협은행	88.82	6.04	3.64	1.50
15	대신증권	54.96	20.07	20.98	3.99
16	동양생명보험	83.09	10.13	3.84	2.94
17	롯데손해보험	89.88	6.63	2.66	0.83
18	미래에셋생명보험	82.75	4.44	10.16	2.66
19	미래에셋증권	49.81	18.80	18.71	12.67
20	부산은행	96.02	2.05	1.30	0.63
21	삼성생명	91.41	3.22	3.97	1.40
22	삼성증권	46.94	24.67	21.10	7.29
23	삼성화재해상보험	89.36	6.36	3.68	0.60
24	신영증권	75.52	10.39	7.02	7.07
25	신한라이프	52.12	29.90	11.87	6.11
26	신한은행	91.89	3.79	2.98	1.34
27	신한투자증권	54.31	26.89	12.80	6.00
28	아이엠뱅크	94.45	2.83	1.89	0.82
29	우리은행	90.75	4.61	3.37	1.26
30	우리투자증권	25.14	11.08	32.56	31.21
31	유안타증권	82.55	3.51	8.97	4.97
32	푸본현대생명	78.59	10.66	9.44	1.30
33	하나은행	90.55	3.70	3.57	2.17
34	하나증권	55.26	12.10	21.14	11.51
35	한국산업은행	89.66	7.01	2.70	0.63
36	한국투자증권	45.36	18.00	23.66	12.98
37	한화생명보험	94.29	1.98	3.00	0.73
38	한화투자증권	48.42	29.95	14.19	7.44
39	현대차증권	85.36	5.83	4.39	4.41
40	현대해상화재보험	80.94	12.81	3.98	2.27
41	흥국생명보험	84.04	8.52	5.28	2.16